**언제나 주와 함께**

**<살전 4:13-5:11>**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40일간 제자들과 좀더 시간을 함께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기다리라 당부하셨으며, 그 성령을 받아 온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이후 약속대로 마침내 성령이 임했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사이비, 이단들이 곧잘 그렇게 하듯,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말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초기 박해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 죽어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지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질문을 품게 되었고, 사도들은 이에 대해 답변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단순한 질문: “과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이에 대해 이미 예수님은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막13:32-33)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살전5:1-2,6).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왜 지연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3:8-9).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곧 심판의 때를 의미하기에,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때를 지금껏 연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혹시 그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다른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살전4:13-14)

그리고 이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근거해 예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16-17).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종말에 관한 진실은 우리의 죽음이 그 모든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 뒤에 우리는, 비록 그 즉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또 다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우리는 이제 ‘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내 주님을 기쁨 가운데 다시 만나고,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한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환란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본문 5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둠에 속하여 밤에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도둑 맞는 일처럼 갑작스런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은 갑작스런 불행이 아니라 고대하던 행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바르게 준비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혼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임을 말과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힘써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사랑입니다. 그 받은 사랑에 응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곧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를 따름이 곧 고난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의 오심과 함께 임할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랑함으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더라도 너무 슬퍼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더 온전한 것에 대한 기다림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새벽이 오기까지 예수님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어 쉬면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본문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즉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의 차이는 ‘주님과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의 차이 만큼 크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조차도 이기고 주님의 길을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천 년 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내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세상에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